

천경자 화백, 고향 고흥서 '찬란한 전설'로 부활

파란만장한 '슬픈 전설', 고향에서 '찬란한 전설'로 부활하다.

천경자 화가(1924~2015)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였다. 한국전쟁으로 어렵고 궁핍하던 시절 그는 '뱀'을 그렸다. 젊은 여성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천경자의 그림은 뱀처럼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들이 꿈틀거린다.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가도 예술은 남는다'는 말이 오버랩된다. 그는 그렇게 그의 예술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작품 외에도 진술한 글, 용기 있는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상상력을 선사한다.

작가의 고향 고흥에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개막해 올해 끝날(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전시의 주제는 '찬란한 전설'.

지난 21일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남도는 물론 타지에서 온 관람객들로 붐볐다. 순천, 여수 전남 동부권 외에도 진주, 밀양을 비롯한 영남,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온 이들도 눈에 띄었다.

천경자(본명 천옥자)는 1924년 11월 11일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서 태어났다. 고흥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의 전남여고에 진학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던 그는 고교를 졸업하고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현 동경여자미술대학)로 유학을 떠난다.

이후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로 입선했으며 1944년에는 외할머니를 그린 '노부'로 재입선한다. 본격적인 창작의 길로 들어선 이후 전쟁과 불운한 개인사 등과 맞닥뜨리지만, 그는 결코 창작의 열망을 꺾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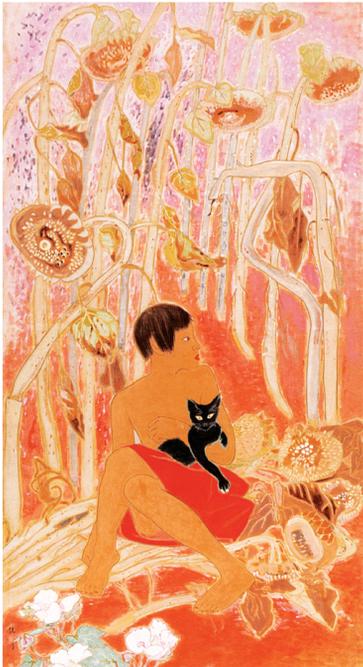
그러다 1952년 발표한 뱀 그림 '생태'는 오늘날 천경자를 있게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는다. 그림에는 아픈 서사가 담겨 있다.

특별전 총감독을 맡은 천경자 화백의 둘째딸 김정희 교수는(수미타 김·미국 몽고메리대학교 미술학과)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밑의 여동생이 폐결핵으로 숨지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유훈을 강물에 뿌리고 하루에 한 마리씩 뱀을 그렸어요."

이 같은 사연은 천경자 화백의 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에도 나온다. "뱀 수십 마리를 화면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별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창작을 추동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12월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길레연니' 시작 7부로 구성



'정 (靜)'



'아이누어인'



1977년 서교동시절 천경자 화백

김정희 감독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감동과 그리움'으로 잡았다. 어머니(천경자) 역시 신비로운 서도 개성적인 작품을 남기고 우리들 곁을 떠났다"며 "천경자라는 이름은 아릿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유일한 단독 전시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삶을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제시하기 위해 당시 친필 편지, 미공개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들어와 고흥에 머물며 이번 특별전 준비를 했다. 올해 만 70세인 김 교수는 첫눈에도 젊은 시절 천경자 화백을 닮은 모습이었다. 그는 오후 4시엔 문화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작품 해설을 해주고 있다.

전시는 모두 7부로 짜여져 있다. 들어가는 문에선 고흥의 추억을 소환한 그림이

관람객을 맞는다. 바로 73년에 그린 '길레연니'가 그것. 김 감독은 "어린시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본 화사한 모습의 길레연니는 후일 소록도에 간호사로 갔다"며 "길레연니의 모자 쓴 모습은 어머니에게 선망과 구원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1982년 작 '길레연니 II'가 걸려 있다. 관객들은 '길레연니'의 응시하는 눈빛을 마주하며 유년의 천경자와 예술가 천경자가 바라본 '길레연니'를 동시에 조우하게 된다.

이어 전시는 50년대 광주시절을 보듬는 '청춘의 문'으로 이어진다. 부모와 외할머니와 함께 광주로 이사를 했던 때다. 전남여고 교사로 재직할 당시로 앞서 언급한 여동생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했다. 아울러 김 감독은 이 시기에 대해 "광주에서 평생 사랑했던 남성을 만났지만 이 사랑 역시 앞

날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겠느냐고 언급했다. 고향과 고뇌가 큰 만큼 예술에 대한 열정은 의미 있는 결실로 돌아온다. 천 화백은 35마리 뱀 그림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됐으며 홍익대 교수로도 발탁된다. 또한 대작 '정 (靜)'은 미협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에 이른다.

"사글세로 들었던 주인집이 팔려 방을 쫓겨나게 된 판국에도 미협전에 출품할 그림을 끈질긴 나의 집념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시든 해바라기 밭에 검은 고양이와 안고 홀로 앉아있는 계집아이를 울면서 그려 명제를 '정 (靜)'이라 지었다. 수일 후 구경갔다가 뚝 밖에도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놀라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니 마구 눈물이 쏟아졌다."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중)

▲천경자 화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작가의 고향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올해 말까지 열린다.

이어지는 주제는 60~70년대 도전과 실험의 시대를 맞는 '꿈과 바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리 체류 당시 유향 누드를 소개하는 '파리시절', 누구보다 대중과 소통했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로 연결된다.

해외 스케치·문학 기행의 선구자였던 발자취도 살펴볼 수 있다. '자유로운 여자'에서는 스케치를 시작하면 두 시간씩 서 있을만큼 열정적이었던 천 화백의 스케치 작품을 다수 볼 수 있다. 김 감독은 "어머니는 밑도 없는 붓터치를 사용하면서도 당시만의 테크닉이 있어 하늘하늘한 꽃 이파리들을 그려내곤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는 처절한 의지로 뱀을 사생했으며 이후에는 뉴욕의 뮤지컬 무대나 서커스 공연 등에서 움직이는 사물이나 형상을 빠른 동작으로 스케치하는 것을 즐겼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7부에서는 작품에 원숙한 에너지가 충만했던 서교동 시절의 '찬란한 전설'이 펼쳐진다. 작가의 원숙한 에너지가 응축된 70년대 말 '뱀고개 흐르는 황혼'은 이 시기 대표작이다.

한 인간으로서, 한 예술가로서 천경자 화백의 발자취는 독창성, 용기, 진정성으로 집약된다. 김 감독은 "누가 뭐래도 천경자 화가는 '내가 그리고자 한 것을 나만의 화법'으로 그린 작가였다. 시대의 고달픈 속에서도 사랑, 꿈, 모정을 원동력 삼아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낸 예술가였다"며 "이번 전시를 매개로 거목의 미술사적 중요성을 사유할 수 있는 친밀한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네 명의 연주자 앙상블... 피아노 연탄곡의 조화

앙상블8 정기연주회, 3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피아노 한 대를 한 명이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해 두 대를 네 명이 연탄(連彈)하는 구성으로, 다시 한 대 앞에 네 명 연주자가 앉는 흐름의 '피아노 앙상블'이 펼쳐진다.

앙상블8이 제7회 정기연주회 'ENSEMBLE 8'을 오는 30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다. 2016년에 창단한 앙상블8은 음대 졸업 연주자와 반주자, 교사로 구성된 청년음악단체다.

슈만과 모차르트 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솔로 작품 '거룩한 성채와 헌정'으로 막을 올린다. 연주에 피아니스트 최원영, 이어 한 피아노에서 세 명이 함께하는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가 울려 퍼진다. 김소정, 박건하, 김세란이 출연해 6번즈 연주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두 대 피아노에서

두 명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콘체르토 2번', 베네트의 '모음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현대적인 연주기법을 사용하여 작곡된 불컴의 '에덴동산', 자유로운 기악곡인 8번즈 '터키행진곡 랩소디',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라비나 '칼림마치' 등도 울려 퍼진다. 윤보배, 정세영 최지영, 현보람 등이 연주할 예정이다.

한편 앙상블8은 지난해 유스퀘어문화관을 비롯해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정기연주회를 펼쳐 왔다.

박건하 단원은 "음악을 연구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8인의 피아니스트가 관객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연탄곡 형식으로 정통 피아노 클래식 매력에 배가시키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치열하게 연



지난 정기연주회 당시 피아노 연탄곡을 선보이는 앙상블8 단원들. (앙상블8 제공)

습해 왔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7인7색7분 스피치'로 광주 인문적 가치 조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 포럼, 28일 DJ센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인문학적 가치를 사유할 수 있는 서사와 장치들을 담고 있다. 특히 5·18항쟁 이후 트라우마와 상흔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대표작이다. 광주를 모티브로 인문적 가치와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광주 인문학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스피치가 열린다. 특히 이번 스피치는 지역 문화기관 대표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 인문적 도시재생 등을 이야기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이하 지원포럼)은 오는 28일(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인 7색 7분 스피치를 연다.

3회째를 맞는 이번 스피치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의미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활용한 인문학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기초발표를 한다. 이어 전고형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 백형주 도시문화공작소 인유대표,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가 토론으로 참여해 인문학적 도시재생 관련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이번 7인 7색 7분 스피치는 오월의 문화 유산을 현상적 도시재생만이 아닌 정신적 유산의 도시재생으로 이어가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광주의 문화 자산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